

커피 향 따라 영산강서 써내려간 삶의 칸타타

문순태 작가, 삶·시대 흔적 담은 '영산강칸타타' 출간

80여년을 무등산을 바라보며 살아온 소설가 문순태가 커피 한 잔을 곁에 두고 자신의 굴곡진 삶을 되돌아보는 자전적 장편소설 '영산강 칸타타'(오래)를 펴냈다. 이 작품은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전 9권)을 쓴 작가가 2023년 영산강으로 거처를 옮긴 뒤 2년 동안 강과 함께 살아오며 느낀 삶의 소회를 풀어낸 자전적 장편소설이다. '커피'와 '영산강'이라는 두 이미지를 축으로 한 작가의 삶과 기억, 시대의 흔적을 함께 담았다.



시·에세이·소설 넘나드는 장르 결합 자전적 장편 선배



문순태

소설은 영산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노작가의 일상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강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삶에 얽힌 기억의 실타래를 풀어간다. 유년 시절과 문학의 길, 시대의 격랑 속 겪어온 굴곡진 삶이 강물처럼 이어진다.

특히 작품은 장르의 경계를 허문 형식이 특징이다.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와 에세이, 소설이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결합된다. 외국 문학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형식이지만, 국내 문학에서는 여전히 드문 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작가는 1939년 무등산 자락 끝 담양군 가사문학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6·25전쟁을 겪으며 공비토벌작전지역이라는 이유로 고향을 떠나 떠돌아야 했던 경험은 그의 삶과 문학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후 광주고 재학 시절 시인 김현승을 만나 문학의 길에 들어섰고, 교사와 기자 생활을 거쳐 소설가로 자리 잡았다.

그는 유신 시기 사회의 부조리를 목격하며 기사 대신 소설로 시대를 고발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회고한다. 1980년 5·18광주항

쟁 당시에는 군부독재를 부정하는 반체제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해직되기도 했다.

해직 기간 동안 작가는 장성택 수물민들의 고향 상실의 한을 다룬 '정소리'와 남북 분단의 이념 갈등을 그린 '철쭉제' 등을 발표하며 작품 세계를 넓혔다.

이후 대학에서 15년 동안 학생들에게 소설을 가르쳤으며, 2006년 정년퇴임 뒤에는 무등산 자락 생오지 마을에서 18년 동안 '소설창작교실'을 운영하며 후학을 길렀다.

올해 86세인 그가 다시 영산강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것은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의 무대이기도 한 이 강을 따라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다.

작가는 "무등산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영산강을 따라 나주에 안착하게 됐다"며 "이제 영산강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과도 같다"고 말했다.

'영산강 칸타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소재는 커피다. 그는 고교 시절 스승 김현승 시인을 통해 처음 커피를 접한 뒤 지금까지 커피 애호가로 살아왔다. 작품에는 전국의 카페를 찾아다니던 커피 여행 이야기와 커피의 역사, 그리고 커피와 얽힌 삶의 기억들이 함께 담겨 있다.

작품에는 가족 이야기와 함께 5·18 시민군과의 기억, 세상을 떠난 화가 친구에 대한 추억 등 개인의 삶과 시대의 풍경도 들어있다.

'영산강 칸타타'는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집필한 작품이기에 더욱 특별하다. 그는 "어휘력 상실과 집중력 저하로 글을 쓰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스승 김동리 선생이 써준 '자강불식' 편액을 보며 2년 동안 매일 두 시간씩 창작에 매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몸과 마음이 비틀거릴 만큼 늙었지만, 흐르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산강을 바라보며 깨달았다"며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펜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순태 작가는 1955년 '현대문학' 시추천으로 문단에 이름을 알렸고, 1974년 '한국문학' 신인상 소설 '백제의 미소'로 등단했다. 이후 이상문학상 특별상, 채만식문학상, 요산문학상, 전남도문화상, 광주시문화예술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최명진기자

새로 나온 책



▲당신의 상처는 사적이지 않다 =정찬영 저자

책의 저자이자 '열매'의 자문의를 맡고 있는 정찬영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외에도 세월호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들을 오랫동안 치유해 왔다. 그는 이 책에서 다양한 트라우마 감정들, 즉 외상적 슬픔, 독성 수치심, 산 자의 죄책감, 도덕적 손상 등이 실제로 어떤 양상으로 발현하며 이를 회복할 방법이 무엇인지, 피해자들의 인터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장비·2만2천원



▲처마에 걸린 달=아웨이무이 저자

이 책, 이영남 옮김, 영창권 감수 중국 이족 출신 여성 작가 아웨이무이무이무이의 '준마상' 산문 부문 수상 작품집이 출간됐다. '준마상'은 중국 소수민족문학을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다. 이번 책에는 에세이를 중심으로 장르적 성격이 혼재된 32편의 작품이 실렸다. 작가의 실제 체험에서 비롯된 생생한 경험적 현실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특히 1990년 전후로 진행된 개혁개방의 흐름 속 이주가 불려온 두려움과 호기심 등이 공동체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모습을 담아냈다. /문학동네·1만8천원



▲구름 사람들=이유리 저자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되는 가장 낮은 곳의 이야기.' 복잡다단한 삶을 아름답고 환상적인 상상력으로 엮어내는 이유리의 첫 장편 소설이 출간됐다. 이 책에는 그가 여태 그려온 이야기를 통틀어 가장 목직하고 선명한 슬픔이 담겼다. '작가의 말'에서 "지금까지 쓴 소설 중 가장 길고 슬프고 무거운 이야기"라고 밝혔듯, 저자는 이번 작품을 통해 설블리 치유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불행에 집중하고 세밀한 시선으로 파헤치고, 비로소 정면으로 맞닥뜨리고자 한다. 그것의 이름은 바로 '가난'이다. /문학동네·1만8천원



▲마나의 편지=나이 저자

고래섬에서 홀로 평화롭게 지내던 할머니 '마나'가 복숭아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자 어린이들이 닮은 '송아'들이 탄생한다. 저마다 성격이 다른 '일곱 송아'와 마나가 함께 하는 사계절이 시작된다. 제3회 창비그림책상 대상 수상작 '마나의 편지'가 출간됐다. 탄력 있는 서사와 친근한 캐릭터의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마나와 일곱 송아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 속 일상이 한층 풍요로워지는 순간들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옛이야기의 요소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 어린이들이 즐겁고 주제적으로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북돋는다. /창비·1만6천800원

한·일 인구감소 위기 속 지역재생 해법 모색

김일태·임영언·박석강 교수 '지방소멸과 지역재생' 출간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구조적 위기 속 해법을 모색한 연구서가 출간됐다.

김일태 교수와 임영언 교수, 박석강 교수가 공저한 '지방소멸과 지역재생'(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이다.

이 책은 양국의 인구 변화 양상과 지역사회 대응 전략을 비교·분석하며, 구체적인 지역재생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연구 목적과 배경을 정리하며, 한·일 양국이 처한 인구감소의 현실과 문제의식을 짚는다.

2장은 일본의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을 다룬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고령자 재취업 전략을 소개한다.

3장은 일본 내 재일동포 사회의 인구 감소와 위상 변화를 고찰한다. 관계 인구 확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재일동포의 인구구성 변화와 통계적 의미를 분석하고, 수치를 추정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4장은 재일동포 축제와 지역 활성화 문제를 다룬다. 오사카 사천왕사에서 열리는 '와소' 축제를 사례로, 재일동포 감소 위기에 대



응해 축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살핀다.

5장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이민자 정착 사례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을 조명한다. 고려인 사회 내부에서 가시적 공동체 형성과 정체성 정립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6장은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다룬다. 일본 사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기존 행정 중심 개별지원과 지역 조직화를 분리해 상정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 지원과 지역 조직화를 수평적으로 결합한 '공동체 케어'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어 한국에서도 일본 농촌 지역의 공동체 케어 모델을 참고하되, 한국 농촌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공동체 케어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7장은 한국의 비상주 인구정책 사례를 살핀다. 본격적인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의 동시 진행, 집체된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SDGs 달성과 탄소 중립 대응 등의 과제 속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짚는다. 계절 관광객, 세컨드 하우스, 원격 근무자 등의 차원에서 비상주 인구정책의 제도적 배경과 설계, 수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마지막 8장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한계와 향후 과제로 책을 마무리한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여수지사 061)851-643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